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요인 연구*
-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Factor of Citizen Participation in Influencing the Environment Capital Policy
- Focusing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김 주 경 (두원공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 주저자)
조 광 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 공동저자)
이 홍 재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Ju-Kyung Kim / Kwang-Rae Cho / Hong-Jae Lee

Along with the increasing citizens' concern and the emerging issues on environment, provincial governments have to be faced with challenges to meet those new needs.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been preparing to make good policies on environment in order to catch international step.

Therefore, this paper conducts the research and aims to explore local citizens' participation intention to provincial environmental capital policies. 300 questionnaires are surveyed to citizens in Kyung-gi province, and the collected date is analyzed statistically by SPSS and AMOS packages. The results of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show that citizens' Policy Perception,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d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olicy participation intention. However, Subjective Norm does not significant.

주 제 어: 정책 참여의도, 계획된 행동이론, 환경수도 정책

Keywords: policy participa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vironmental capital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지방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I. 서 론

정책의 성공적 집행과 효과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책내용, 집행체계 및 과정, 정책대상집단의 순응 확보 등 다양한 요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수도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주민의 동참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정회성 · 김미숙, 2000). 환경문제의 해결 및 친환경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환경규제 및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재휘 · 신진석, 2004). 최근에는 국민의 행태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까지 주장되고 있다(Maloney & Ward, 1973; Clark et al, 2003; Hawcroft & Milfont, 2010; 김민경, 2014).

최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환경계획에 참여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조공장 외, 2007). 주민들에게 환경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환경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따른 집단간, 정부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내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해결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환경수도 정책과정에 지역주민 참여를 설명·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는 본 연구의 핵심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환경정책 참여의도를 설명하는 선행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도 설명요인들을 예측하고, 이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환경수도 정책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지방정부들은 환경수도(環境首都)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수도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일본의 기타큐슈시(北九州市)를 들 수 있다. 기타큐슈시는 일본의 4대 공업지대의 하나로서 196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대기, 수질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가, 기업,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노력이 강해졌다. 이에 기타큐슈시는 1971년, 공해대책국(현, 환경국)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법률보다 엄격한 수준의 「기타큐슈시 공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그린 기타큐슈 플랜"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기타큐슈시는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더불어 공해대책이나 에너지 효율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적,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北九州市 홈페이지).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브라질의 꾸리찌바(Curitiba), 독일의 함부르크(Hamburg), 프라이부르크(Freiburg)[1] 지역이 환경수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무주, 강원, 광주, 수원, 창원,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환경관리 우수도시, 또는 환경수도 달성을 위해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마다 추구하는 환경수도의 형태와 모습은 지자체가 가지는 환경적, 기술적, 행정적 특수성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환경수도를 기능적인 개념으로 '환경분야 활동이나 기능이 중심이 되어있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환경수도의 목표를 '국제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도시로 전 세계의 환경도시 중 모범이 되고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설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친환경산업 육성 및 확대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등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제주시, 2013).[2] 제주시는 환경수도 목표 달성을 위하여 12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측면의 녹색자치, 환경적 측면의 청정환경, 경제적 측면의 녹색성장을 추진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수도 정책 사례로는 수원시를 들 수 있다. 수원시는 환경수도를 정의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환경의 질적 수도 구축이며, 둘째는 우수한 환경을 활용한 통합 도시 구축이다. 수원시의 환경수도는 '높은 수준의 자연자원 보전 및 환경 질 관리를 통해 환경적으로 으뜸인 도시', '환경보전, 경제적 활력, 사회적 형평성이 최고 수준으로 통합된 도시' 등으로 정의된다. 환경수도 목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생태적인 녹색환경 도시', '시민참여 녹색 거버넌스 도시' 등을 설정하고 있다(수원시 환경수도 TF팀, 2010; 이재준, 2011). 수원시는 환경수도 구축을 위해 환경경쟁력(환경질, 환경정책, 환경 거버넌스 등에서 다른 도시보다 높은 경쟁력)의 확보, 지속성과 총체성의

---

1)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독일환경원조재단이 환경자연보호연맹(BUND), 자연보전연맹(NABU) 등 환경 NGO 및 자치단체 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환경수도 콘테스트에서 1992년 환경수도로 선정된 바 있음(환경부, 환경정책일반 자료).

2) 제주는 2010년 환경부가 지정한 최우수 환경관리 도시이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3년 1월 3일, 2020 제주세계환경수도 비전을 선포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환경의 수도(首都)로 평가받고 있음.

실현(제도와 시스템으로서의 지속성 보장, 지역 구성원 모두의 생활과 의식의 전환)과 함께 시민, 시민단체, 기업, 정부 분야 행위자들이 정책 수립·결정·집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녹색 거버넌스의 실천을 의미하는 이른바 녹색 자치의 구현을 강조한다(허태욱, 2012).

현재 국내에서 환경수도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수원시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지방정부는 환경수도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음의 공통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환경수도 정책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민과 지방정부 등 관련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이며, 다른 하나는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결국 환경수도 정책 목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정책인지와 정책참여

Habermas(1989)는 공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이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의 형성 및 수립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형성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인지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형성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이해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형성보다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를 통한 실제 정책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환경정책의 경우 형성과정에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의 활용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정책 거부의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다.[3] 그러나 형성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인식과 이를 통한 정책참여의 강도는 매우 중요하다. 우지숙(2009)에 따르면 정책에 대한 무지(無知) 및 불명확한 인지는 정책을 둘러싼 행위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도 감소되어 정책의 효과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한다(Delli Carpini. M., & Keeter. S, 1996; Alvarez, 1997; 정광호, 2008; 우지숙, 2009). 이러한 지적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정책참여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정광호(2008)는 정책에 대한 인지를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로 설명하면서 정책

---

3) 물론 환경분야의 정책이라고 하여 당연히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이롭게 활용하는 정책의 형성에 모든 시민이 찬성하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 역시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신뢰와 정책형성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Hetherington & Globetti(2002)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다차원적이고 잠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정책의 형성 등을 둘러싼 행위에서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논의의 흐름과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설명한다.

리터러시 내용을 전통적, 기능적, 비판적 측면으로 구체화시켜 논의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정책 리터러시(traditional literacy)는 단순히 정책에 대한 지식 및 이해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리터러시를 뜻하고,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는 이해하고 있는 정책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수준에 따라 판단하는 리터러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는 정책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에 미칠 영향을 비판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수준에 따른 리터러시를 의미한다. 정광호(2008)의 구분은 정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구분하는 분류이면서 동시에 정책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한 참여의 정도가 다양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지 수준은 정책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의 환경수도 정책참여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또는 인지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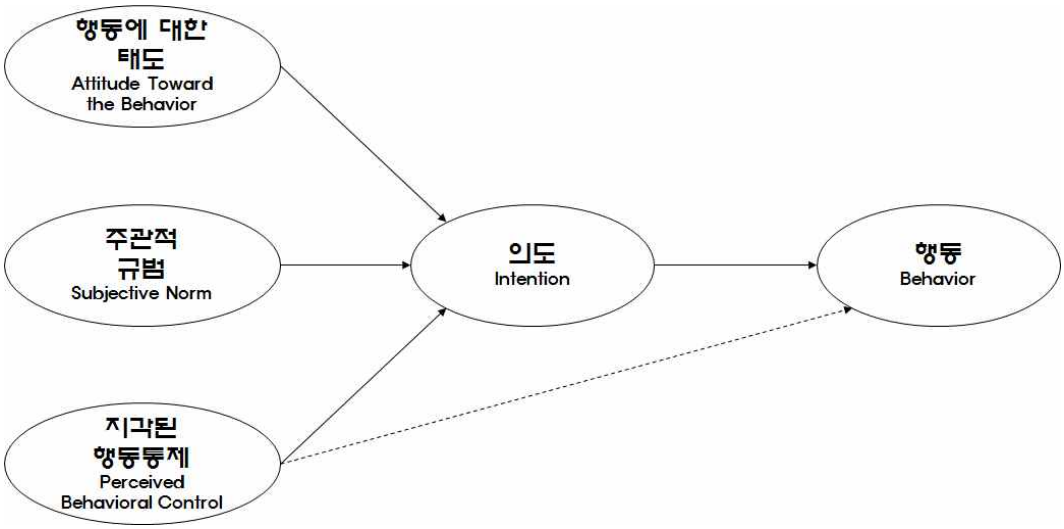
〈가설1〉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지는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합리적 행위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요인을 추가한 것으로 Schifter & Ajzen(1985)에 의해 제시되었다. 계획된 행동이론과 합리적 행위이론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론이다. 기존의 합리적 행위이론은 태도와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은 행동의도는 행동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지각된 행동 통제 역시 행동의도에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강조한다(Schifter & Ajzen, 1985).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는 행위자가 대상 행동에 대해 가지는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평가나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로 구분된다. Fishbein & Ajzen(1975)에 따르면 태도는 행위자의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인지적(謁知的) 태도보다는 감정이나 정서를 포함하는 정의적(情意的) 태도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행위자가 가지는 정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정책에 참여의도와 행동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환경수도 정책과 같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일정부분 결정된 분야의 경우에는 행위자 혹은 참여자의 호의적인 태도가 다른 정책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의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출처: Ajzen & Klobas. (2013). p.206.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모형

환경문제와 관련된 행위자의 태도와 행동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유두련 & 심미영, 1998). 하나는 Weigel & Weigel(1978), Bruvold(1973), Roberts(1991), 서정희(1989), 이승신, 이혜임 & 류미현(1993), 송영우(1994) 등의 연구와 같이 환경문제에 대해 가지는 행위자의 태도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규명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태도에 대한 관찰 및 예측을 통해 행위를 파악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 하나는 태도 변화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며, 이외의 다양한 변인들이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 연구이다(Herberlein & Black, 1981; Berger & Corbin, 1922; 현금희, 1990).

이처럼 환경분야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자의 태도는 행동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정의적 태도 즉,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정서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태도는 해당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가설2〉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정의적 태도는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행위자 혹은 참여자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지각을 의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한 자신의 믿음 혹은 그 주변인이 그 행동을 지지할 것인가 등에 대한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떠한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자신 주변의 중요 인물들이 그 행동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은교, 2012).

개인의 주관적 규범은 정책의 수용과 참여를 통해 집단의 규범으로 확산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규범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처럼 주관적 규범이 사회적, 집단적 규범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Schwartz(1977)의 규범-활성화 이론(Norm-Activation Theory)이다. 이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집단적, 사회적 규범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집단의 규범은 친사회적 행동수행을 고취시킨다.

계획된 행동이론과 규범-활성화 이론을 토대로 할 때,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특정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이 환경수도 정책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이들이 가지는 주관적 규범의 강도가 강할수록 정책 참여의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의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가설3〉 주관적 규범은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는 참여자 자신이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Ajzen(1991)은 이에 대해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표현하고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를 환경수도 정책참여 행동에 적용시켜 보면, 지역주민이 환경수도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비용,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해당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강화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가설4〉 지각된 행동통제는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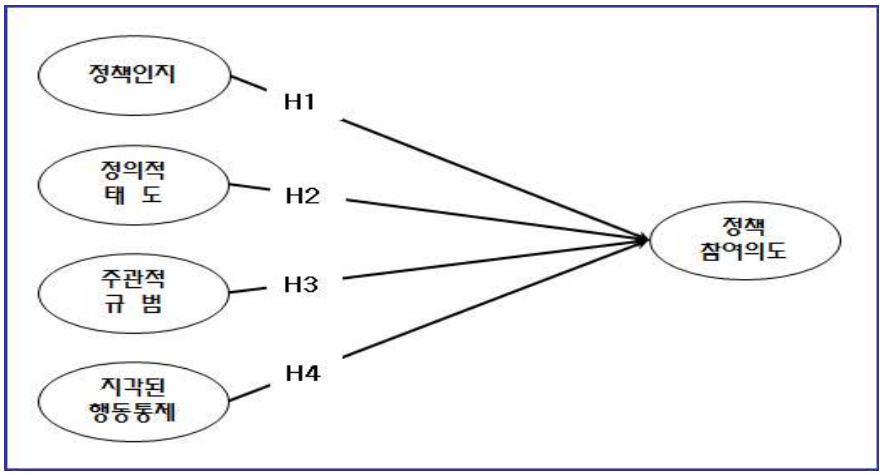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내용을 토대로 환경수도 정책 참여의도에 관한 연구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구성의 이론적 토대는 인간행동을 설명·예측하는 이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이다. 외생변수인 독립변수는 환경수도 정책 참여의도를

결정하는 선행요인으로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지, 정의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는 환경수도 정책의 참여의도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 간의 관계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가정에 따라 긍정적인 경로를 가정한다.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지, 정의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긍정적일수록 환경수도 정책에의 참여의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환경수도 정책 참여의도와 이의 선행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그림 2〉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도 선행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수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A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구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2차적으로 구의 주민 인구규모, 연령 및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설문대상은 총 300명이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설문조사 방식은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통해 면대면 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217부가 회수되었으나 무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196부(유효회수율: 35.3%)만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적용하였다.

3.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환경수도 정책 참여의도와 이의 선행요인에 관한 측정도구들은 기존 관련 문헌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몇몇 문항의 경우 환경수도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반영해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측정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5개 문항을 포함해 총 25개로 구성된다.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이해 또는 지식수준 정도로 정의하고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의적 태도는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인물이 환경수도 정책에 참여하라고 언급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환경수도 정책 참여가 자기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정책 참여의도는 향후 환경수도 정책에의 적극적 참여의지 정도로 정의하고,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표 1〉 참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 또는 서열척도로 구성하고 이를 제외한 측정변수들은 모두 5점 Likert 척도(①:매우 부정↔⑤:매우 긍정)를 활용하였다.

〈표 1〉 측정변수

잠재변수	측 정 변 수	*선행연구*
정책 인지	①나는 우리 시의 환경수도정책 취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②나는 우리 시의 환경수도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③나는 우리 시의 환경수도정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④나는 우리 시의 환경수도정책 추진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김금미(2010) 정광호(2008) Delli Carpini & Keeter(1996)
정의적 태도	①나는 환경수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②나는 환경수도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가치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③나는 환경수도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④나는 환경수도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김금미(2010) Fishbein & Ajzen(1975)
주관적 규범	①주위 사람들은 내가 환경수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주위 사람들은 내가 환경수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③주위 사람들은 내가 환경수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찬성한다. ④주위 사람들은 내가 환경수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김금미(2010) 김수옥(2012) Jamil & Mat (2011)
지각된 행동 통제	①나는 환경수도정책에 참여할 때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능력이 있다. ②나는 환경수도정책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③나는 환경수도정책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있다. ④나는 환경수도정책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여유를 갖추고 있다.	Ajzen(2002) Jamil & Mat (2011)
정책 참여 의도	①나는 향후 환경수도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②나는 향후 환경수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도가 있다. ③나는 향후 환경수도정책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 ④나는 향후 환경수도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고은교(2012) Ajzen(1991)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98명으로 50%씩 분포되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30.6%(6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대(42명, 21.4%), 30대(32명, 16.3%), 10대와 40대가 각각 31명(각 15.8%)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학력분포는 고졸이 전체의 41.8%(82명)로 가장 많고, 중졸 이하 24.0%(47명), 대졸 19.9%(39명), 전문대졸 12.2%(24명) 등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유형으로는 학생이 34.7%(68명)로 가장 많았고, 주부(44명, 22.4%), 회사원(31명, 15.8%), 기타(50명, 25.5%)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만원대가 전체 응답자의 27.2%(5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하 25.6%(50명), 400만원 이상 17.9%(35명), 100만원대 14.9%(29명), 300만원대 14.4%(28명) 등이었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자	98	50.0	직업	회사원	31	15.8
	여자	98	50.0		공무원	3	1.5
연령	10대	31	15.8		학생	68	34.7
	20대	42	21.4		주부	44	22.4
	30대	32	16.3		기타	50	25.5
	40대	31	15.8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50	25.6
	50대 이상	60	30.6		100만원대	29	14.9
학력	중졸 이하	47	24.0		200만원대	53	27.2
	고졸	82	41.8				
	전문대졸	24	12.2		300만원대	28	14.4
	대졸	39	19.9		400만원 이상	35	17.9
	대학원이상	4	2.0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지, 정의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그리고 정책 참여의도의 Cronbach's α는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잠재변수별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표 3〉 참조).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결과, GFI와 AGFI를 제외한 RMR, RMSEA, NFI, TLI, CFI 등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FI(0.885)와 AGFI(0.849)의 경우에도 수용기준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적재량과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집중타당성은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이고(Barclay et al. 1995), C.R.이 0.7 이상, AVE는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Hair et al., 1995).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잠재변수별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모두 0.7이상이고, 잠재변수별 C.R.은 0.8이상, AVE는 0.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관찰 변수	요인 적재량	표준화 요인 적재량	표준 오차 (S.E.)	t 값	C.R.	AVE	Cronbach's α
정책 인지	c1	1.138	.928	.055	20.617	0.965	0.874	0.950
	c2	1.135	.931	.055	20.776			
	c3	1.027	.886	.056	18.463			
	c4	1.000	.892					
정의적 태도	a1	.836	.821	.053	15.896	0.929	0.765	0.944
	a2	1.003	.953	.045	22.496			
	a3	1.030	.932	.048	21.260			
	a4	1.000	.895					
주관적 규범	n1	.867	.765	.064	13.476	0.911	0.721	0.925
	n2	.930	.880	.053	17.515			
	n3	1.095	.963	.053	20.825			
	n4	1.000	.876					
지각된 행동 통제	b1	.718	.639	.072	9.968	0.853	0.596	0.873
	b2	.853	.778	.064	13.328			
	b3	.935	.850	.061	15.298			
	b4	1.000	.899					
정책 참여 의도	i1	1.119	.893	.083	13.471	0.904	0.703	0.913
	i2	1.122	.893	.083	13.464			
	i3	1.111	.863	.086	12.941			
	i4	1.000	.765					

χ^2=259.034, Q=1.619, GFI=.885, RMR=.048, AGFI=.849, NFI=.929, TLI=.966, CFI=.971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은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AVE의 제곱근 값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각 구성개념에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별 측정도구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및 판별타당성

구성 개념	Mean	St.D	①	②	③	④	⑤
① 정책인지	1.49	.780	*0.935*				
② 정의적 태도	3.25	1.081	.005	*0.875*			
③ 주관적 규범	2.14	1.010	.378**	.152*	*0.849*		
④ 지각된 행동통제	2.03	.926	.264**	.276**	.207**	*0.772*	
⑤ 참여의도	2.54	.953	.293**	.433**	.228**	.578**	*0.839*

*p〈0.05, **p〈0.01
주) 진하게 표시된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

3. 가설검증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χ^2,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된 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잔차평균자승이중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터커-루이스지수(Turker-Lewis index: TL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χ^2=259.034(p=.00), 자유도(d.f)=160로 나타났으며, Q(χ^2/d.f)=1.619, GFI=0.885 AGFI=0.849, RMR=0.048, RMSEA=0.056, NFI=0.929, TLI=0.966, CFI=0.971 등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대부분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와 모형 간의 적합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는 가설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지와 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경로계수는 .146(t=1.908)이고,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이는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참여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정의적 태도와 정책 참여의도 간의 경로계수는 .230(t=4.711)이고, 이는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정의적 태도가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수도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책 참여의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정책 참여의도 간의 경로계수는 .053(t=1.021)이고,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기각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주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변 인물들이 환경수도 정책에의 참여를 지지하거나 권유하더라도 실제 정책 참여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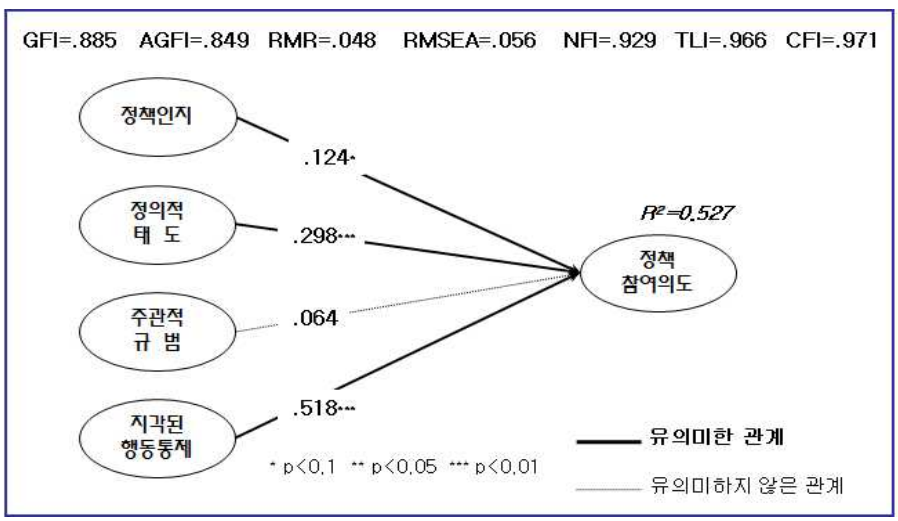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와 정책 참여의도 간의 경로계수는 .442(t=7.029)이고,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되었다. 이는 환경수도 정책 참여가 자신의 의지와 통제 하에 있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정책 참여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구 분	가설내용	방향	Estimate	S.E.	t	Sig.	검증 결과
가설1	정책인지 → 정책 참여의도	+	.146*	.077	1.908	.056	채택
가설2	정의적 태도 → 정책 참여의도	+	.230***	.049	4.711	.000	채택
가설3	주관적 규범 → 정책 참여의도	+	.053	.052	1.021	.307	기각
가설4	지각된 행동통제 → 정책 참여의도	+	.442***	.063	7.029	.000	채택

*p〈0.1, **p〈0.05, ***p〈0.01

〈그림 3〉은 구조모형에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표준화 계수를 중심으로 모수추정치를 보여준다. 외생변수인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지, 정의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환경수도정책 참여의도의 변량은 52.7%로 나타났다.



〈그림 3〉 구조모형 분석 결과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경수도 정책에 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 참여의도와 이의 선행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 중 환경수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주민들의 정책인지와 정의적 태도 모두 정책 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수도 정책인지와 정의적 태도가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과 〈가설2〉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책 참여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경우 정책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와 주관적 규범은 평균 1-2점대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자신과 관련된 주변 인물이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참여를 권유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인이 환경수도 정책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유로 주관적 규범이 정책 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정책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는 채택되었다. 이는 환경수도 정책 참여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강할수록, 그리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정책 참여의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가 지니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지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환경분야 지방자치 행정사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인 실시해야 할 것이다. 환경수도 정책의 경우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서 단순히 환경사업에 대한 홈페이지에 공고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제작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환경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SNS 및 반상회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보의 확산에 있어 SNS의 역할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파급효과는 거주지의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의 확대 · 재생

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활동으로서 반상회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정책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정책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으로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수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참여 및 정책제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감사패, 우수제안 정책상 등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은교. (2012).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을 위한 탐색적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223-236.

김금미. (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2): 259-283.

김민경. (2014). 「환경친화적 행동의 영향요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옥. (2012). 「친환경 제품 구매자의 환경 가치, 신념 그리고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VBN 이론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휘, 신진석. (2004). 공익광고 메시지의 프레이밍과 결과 지각이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지」, 5(2): 65-86.

서정희. (1986).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영우. (1994). 「환경보전 캠페인이 사회책임적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지숙. (2009). 커뮤니케이션이 정책 이해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이용 및 토론 참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7(2): 313-335.

유두련, 심미영. (1998).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적 소비자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23-140.

이승신, 이혜임, 류미현. (1993).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의 능력,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

이재준. (2011).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전략과 사례: 수원시 환경수도를 중심으로. 「녹색한국」, 9월호.

정광호. (2008).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73-104.

정회성, 김미숙. (2000). 환경정책과정에의 주민참여 유형화와 촉진방안. 「환경정책」, 8(2): 159-180.

조공장. (2007).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허태욱. (2012). 수원시 환경수도(저탄소녹색도시)로의 전환과 환경 거버넌스. 「아세아연구」, 55(1): 67-98.

현금희. (1990).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Dorsey.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 665-683.

Ajzen, I., & Driver, B. L. (1991). Predic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from behavioral, normative, and control belief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isure Sciences*, 13: 185-204.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8): 203-232.

Alvarez. R. M. (1997). *Information and Election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arclay, D., Thompson, R. & C. Higgins. (1995). The Partial Least Squares(pls) Approach to Causal Modeling: Personal Computer Adoption and Use as An Illustration. *Technology Studies*, 2(2): 285-309.

Berger. I. E., & Corbin, R. M. (1992).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and faith in others as moderators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11(2).

Bruvold, W. H. (1973). Belief and behavior as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attitudes. *Environment and Behavior*, 5.

Clark, C. F., Kotchen, M. J. & Moore, M. R. (2003).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es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Participation in a green electricity program.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237-246.

Delli Carpini, M. X., & Keeter, S.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Fornell, C. & D.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116-142.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IT Press.

Hair, J. F., R. E. Anderson, R. E. Tatham & W. C. Black.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Hawcroft, L. J. & Milfont, T. L. (2010). The use(and abuse) of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scale over the last 30 years: A meta-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 143-158.

Herberlein, T. A., & J. S. Black. (1981). Cognitive consistency and environmental 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13.

Hetherington. M. J., & Globetti. S. (2002). Political Trust and Ra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2): 253-275.

Jamil, M. A. & Mat, N. K. (2011). To investigate The Drivers of Online Purchasing Behaviour in Malaysia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ur(TPB):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pproa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ICM 2011) Proceeding*, June, 443-460.

Maloney, M. P. & Ward, M. P. (1973). Ecology: Let's hear from the people; An Objective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Ecological Attitudes and Knowledge. *American Psychologist*, 583-586.

Roberts. J. A. (1991). Development of profile of the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for the 1990s and its marketing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Ph.D.

Schifter, D. E., & Ajzen, I. (1985). Intention, perceived control, and weight los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843-851.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221-279.

Weigel R. H., & J. Weigel. (1978). Environmental concern: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Environment and Behavior*, 10.

北九州市(기타큐슈시 홈페이지). 世界の環境首都(세계중심의 환경수도 기타큐슈시: http://www.city.kitakyushu.lg.jp/youkoso/file_0008.html).

수원시 환경수도TF팀. (2010). 환경수도 추진방안.
제주시. (2013).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부. 환경정책일반자료(외국의환경우수도시: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0&seq=1635).

접수일(2015년 11월 15일)
수정일(2015년 12월 07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14일)